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②	①	⑤	③
6	7	8	9	10
⑤	②	①	③	①
11	12	13	14	15
④	①	②	③	③
16	17	18	19	20
②	④	⑤	④	①
21	22	23	24	25
⑤	⑤	④	③	③
26	27	28	29	30
②	④	④	⑤	④
31	32	33	34	35
③	⑤	③	④	②
36	37	38	39	40
②	①	④	③	④
41	42	43	44	45
⑤	③	⑤	③	⑤
46	47	48	49	50
④	③	⑤	③	②

<1번 오답 해설>

**쇠스랑: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풀무덤 등을 쳐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호미와 마찬가지로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소시랑, 소스랑, 쇠시랑, 소스랭이, 쇠서랑 등).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 ②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④ 호미,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정답> ①

'(가) 시대 문화상품 공모'라는 제목 아래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의 유물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고인돌'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반달 돌칼로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

오답 해설>

②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또 고려 시대에 이르러 밭농사에서 2년 3작의 윤작법이 보급되었으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는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앙법)도 행해졌다.

④ 호미*,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초기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와 함께 철제 무기도 만들어 사용하였다(이로써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

*호미: 김매는 데 사용되는 농기구이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호맹이, 호메이, 호무, 흙미, 호마니, 허메, 허미, 희미 등).

02 - 초기 국가, 부여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지도에 표시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평원과 구릉, 넓은 못이 많았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

- ① 정사암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어요.
- ② 여러 가(加)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어요.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어요.
- ④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어요.
- 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어요.

정답> ②

'지도에 표시된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평원과 구릉, 넓은 못이 많았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농업과 목축을 생업으로 하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화창에는 '명마, 적옥, 담비 가죽 등이 생산되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는 기록도 있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초기 국가, 부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초기 국가, 부여는 여러 가(加)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오답 해설>

- ① 정사암에 모여 국가의 중대사, 요컨대 재상 선출과 관련 사안을 결정한 나라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責禍)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읍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④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둔 나라는 고조선이다.
- ⑤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蘇塗)*가 존재하였던 나라는 삼한이다.

*소도: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03 - 금관가야의 역사

3.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길 위에서 만나는 (가)의 역사 ●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변천을 따라 주변을 걸으면서 역사 여행을 떠나 봅시다. (가)의 유적과 유물이 여러분을 역사 현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 답사 일시: 2022. 00. 00. 09:00~16:00
◆ 답사 경로

- 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 ②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 ③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④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 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정답> ①

'길 위에서 만나는 (가)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도시를 가로지르는 해변천을 따라 주변을 걸으면서 역사 여행을 떠나 봅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유적과 유물이 여러분을 역사 현장으로 안내할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답사 경로로 '출발 → 봉황동 유적* → 수로왕릉 → 대성동 고분군 → 구지봉 → 파사석탑** → 도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금관가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에 있는 삼한 시대의 패총[조개무지]이다.

**파사 석탑: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가야의 석탑이다.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인도에서 올 때 배에 실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사'는 범어로 '바사'이며 유체로서 일체의 지혜가 현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금관가야는 변한 지역에서 발달한 나라로, 변한과 마찬가지로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오답 해설>

- ②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다(기원전 108).
- ③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 ④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나라는 신라이다.
- 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한 나라는 고구려이다(194, 고국천왕 16).

04 - 고구려 소수림왕

4.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다큐멘터리 기획안>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

- ◆ 기획 의도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본다.
- ◆ 구성
1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다.
2부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다.

- 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②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 ③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④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⑤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답> ⑤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구하라!'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의 위기 극복 노력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성으로 '1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와 '2부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왕'은 고구려의 제17대 왕인 소수림왕(재위 371-384)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수림왕은 재위 3년인 373년에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왕은 고구려의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이다(427, 장수왕 15)(평양 천도).
- ②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한 왕은 신라의 법흥왕(재위 514-540, 제23대)이다(각 517(법흥왕 4)/531(법흥왕 18)).
- ③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왕은 백제의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이다(6세기 초).
- ④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왕은 고구려의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다(375, 근초고왕 30).

<5번 오답 해설>

④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사 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⑤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이다(682, 신문왕 2). 통일 신라의 석탑으로, 국보 제112호이다.

05 - 익산 미륵사지 석탑

5.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3점]

◆ 유물 이야기 ◆

금제 사리봉영기가 남긴 고대사의 수수께끼



2009년 이 탑의 해체 수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 사리봉영기에는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라는 명문이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 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정답> ③

'금제 사리봉영기가 남긴 고대사의 수수께끼'라는 제목 아래 '2009년 이 탑의 해체 수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리봉영기에는,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라는 명문이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탑을 세운 주체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 공주가 아니라 백제 귀족의 딸로 밝혀져 서동 왕자와 선화 공주 설화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이 탑'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639, 백제 무왕 40). 참고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2018년 6월에 복원되었다.

*사리 장엄구와 사리 봉영기: 사리 장엄구란 사리(舍利) 즉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보호하거나 장엄(엄숙하게 꾸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용기를 말하고, 사리 봉안기란 사리를 봉안하는 내력을 적은 글을 말한다. 사리 봉안기에는 사리 공양을 위한 석탑의 조성 과정이나 사찰의 창건 배경도 기록되어 있다.

오답 해설>

- 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신라의 석탑이다(634, 선덕 여왕 3). 국보 제30호이다.
- ②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 석탑이다. 통일 신라의 석탑으로, 국보 제40호이다(9세기 초 추정).

06 - 백제 부흥 운동

6.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

(나) 검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 ① 당이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겼다.
- ②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③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 ④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⑤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정답> ⑤

(가)에 '왕은 당과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계백 장군(?~660)이 이끈 5천 결사대가 신라군 5만여 명과 싸운 황산 별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660.7). (나)에는 '검모잠이 국가를 부흥하려고 하여 당을 배반하고 왕의 외손 안승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당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삼고 병력을 내어 그들을 토벌하게 하니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안승(?~?)이 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검모잠(?~670)을 죽인 것은 670년 6월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복신(?~663)과 도침(?~661)이 의자왕의 다섯째 왕자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왜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 지원과 함께 부여풍의 귀국을 청한 것은 660년(태종 무열왕 7) 10월의 일이다(부여풍이 일본에서 5천여 지원군과 함께 실제로 귀국한 것은 이듬해인 661년 9월)(백제 부흥 운동).

오답 해설>

- ① 당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긴 것은 675년(문무왕 15)의 일이다. 참고로 안동도호부가 평양에 처음 설치된 것은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인 668년 8월의 일이다. 당시 고구려는 9도호부 42주 100현으로 나뉘지고, 당의 장수 설인귀(614~683)가 도호부사로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677년(문무왕 16)에 안동도호부는 신성으로 옮겨지고, 이후 만주 이곳저곳으로 옮겨 설치되다가 당에서 일어난 안록산의 난을 계기로 758년(경덕왕 17)에 최종 폐지되었다.
- ② 백제의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재위 32년인 554년의 일이다.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방으로, 『일본서기』에는 함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 ③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한 것은 676년 11월의 일이다(기벌포 전투(해전))(676, 신라 문무왕 16). 참고로 매소성 전투는 그 전해인 675년 9월에 있었다.
- ④ 김춘추(604~661)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648년(신라 진덕 여왕 2)의 일이다(나당 동맹).

07 - 발해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기획 전시

(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간: 2022. 00. 00. ~ 00. 00.
- 장소: △△ 박물관 기획 전시실
- 전시관 안내

[1관] 고구려 문화의 계승	[2관] 당 문화의 수용
	
연꽃무늬 수막새와 치미	상경성 평면도
[3관] 말갈 문화의 요소	[4관] 서역과의 교류
	
말갈계 토기	청동 낙타상

- ①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②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 ③ 9서당과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 ④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⑤ 내신좌평, 위사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정답> ②

'(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다'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가)의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시관 안내에 '[1관] 고구려 문화의 계승(연꽃무늬 수막새와 치미 사진)', '[2관] 당 문화의 수용(상경성 평면도)', '[3관] 말갈 문화의 요소(말갈계 토기)', '[4관] 서역과의 교류(청동 낙타상)'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일종의 국립 대학인 주자감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문왕 때 설치).

오답 해설>

- ① 후당과 오월에 사신을 파견한 국가는 후백제이다. 후백제는 건국을 전후하여 오월과 교류하다 925년 이후에는 새롭게 건국된 후당과 교류하였으며 927년에는 거란과의 교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③ 9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각 687(신라 신문왕 7)/685(신문왕 5)).
- ④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한 국가는 신라이다. 화백 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 ⑤ 내신좌평, 위사좌평 등 6좌평(과 16관등제)의 관제를 마련한 국가는 백제이다(260, 백제 고이왕 27)*.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 회의 수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6좌평제의 마련을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거나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08 - (통일) 신라 신문왕의 정책

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한국사 웹툰 기획안	
제목	○○왕, 왕권을 강화하다.
구성 내용	1화 진골 귀족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다.
	2화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다.
	3화 9주를 정비하여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다.
	4화 (가)
주의 사항	사료에 기반하여 제작한다.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다.
- ②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하다.
- ③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키다.
- ④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다.
- 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다.

정답> ①

'한국사 웹툰 기획안'이라는 제목 아래, 제목으로 '○○왕, 왕권을 강화하다'가 나와 있다. 이어 구성 내용으로 '1화, 진골 귀족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다', '2화, 국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다', '3화, 9주를 정비하여 지방 통치 체제를 갖추다', '4화, (가)'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왕'은 (통일) 신라의 제31대 국왕인 신문왕(재위 681-692)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각 687(신문왕 7)/689(신문왕 9)].

오답 해설>

- ②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왕'은 17대 내물마립간(재위 356-402)부터이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이때부터 21대 소지마립간(479-500)까지 약 150년간 사용되었다.
- ③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게 한 왕은 지증왕(재위 500-512, 제22대)이다(512, 지증왕 13).
- ④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운영한 왕은 진흥왕(재위 540-576, 제24대)이다(576, 신라 진흥왕 37).
- ⑤ 이차돈(506~527)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한 왕은 법흥왕(재위 514-540, 제23대)이다(527, 법흥왕 14)(*528년 공인설 있음).

09 - 해상왕 장보고

9.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 ③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④ 9산 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 ⑤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정답> ③

'적산 법화원은 산동 반도에 있었던 신라인 집단 거주지에 세워진 절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절을 창건한 이 인물은 당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가 흥덕왕 때 귀국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암살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의 밑줄 그은 '이 인물'은 통일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846)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②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린 인물은 신라의 학자 고운 최치원(857~?)이다(894, 진성 여왕 8). 하지만 시무책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수용되지 못하였다.
- ④ 9산 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도의 국사(?~825)이다(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에 개산).
- ⑤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은 신라의 설총(655~?)이다. 설총은 화쟁국사 원효(617~680)의 아들이기도 하다.

10 - 고려 태조의 정책

10. 밑줄 그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천덕전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같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社稷)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뜰에서 예를 올리니 여러 신하가 하례하여 함성이 궁궐을 진동하였다. ……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식읍으로 하사하였다.

- ①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다.
- ②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 ③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하였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①

'왕이 천덕전에 거둥하여 백관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굳게 동맹을 맺은 것은 두 나라가 같이 우호를 유지하고 각자의 사직(社稷)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금 신라왕이 굳이 신하로 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대들도 그것이 옳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매우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라왕이 뜰에서 예를 올리니 여러 신하가 하례하여 함성이 궁궐을 진동하였다. …… 신라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그 지역을 김부의 식읍으로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 지역을 김부*의 식읍으로 하사'한다는 표현 등에서 주어진 자료의 밑줄 그은 '왕'은 고려의 태조 왕건(재위 918-94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935, 고려 태조 18).

*김부(金傅):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 제56대)이다.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고려의 왕은 성종(재위 981-997, 제6대)이다(983, 성종 2).
- ③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한 고려의 왕은 예종(재위 1105-1122, 제16대)이다(1109, 예종 4). 7재는 주역을 공부하는 여택재, 상서를 공부하는 대빙재, 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 주례를 공부하는 구인재, 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 춘추를 공부하는 양정재,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재이다.
- ④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고려의 왕은 광종(재위 949-975)이다(각 949(광종 즉위년)/960(광종 11)부터 사용).
- ⑤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경종 원년인 976년부터이다(시정 전시과). 이후 목종 원년인 998년에 개정 전시과가, 다시 문종 30년인 1076년에 또다시 경정 전시과(전시과의 완성)가 시행되었다.

11 - 여진(족)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

11.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험진(公嶮鎭)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여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선춘점(先春帖)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공험진이 선춘점의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 윤관이 (가)을/를 쫓고 9성을 설치하였는데, 그 성이 지금 어느 성이며, 공험진의 어느 쪽에 있는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써서 아뢰라."라고 하였다.

- ① 신라 문무왕 때 청방인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 ②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 ③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 ④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회유하였다.
- ⑤ 조선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정답> ④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동북 지역의 경계는 공험진(公嶮鎭)으로 삼았다는 말이 전하여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려사에 이르기를, 윤관이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고 하였다. 지금 듣건대 선춘점(先春帖)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공험진이 선춘점의 어느 쪽에 있는가.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 윤관이 (가)을/를 쫓고 9성을 설치하였는데, 그 성이 지금 어느 성이며, 공험진의 어느 쪽에 있는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써서 아뢰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윤관이' '9성을 설치'하였다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여진(족)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윤관(?~1111)이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9성을 설치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는 조선 세종이 문신 김종서(1383~1453)에게 동북 지역에 있었던 공험진의 위치와 비 등에 대해 묻고 있는 내용이다(1439, 조선 세종 21).

조선 태종 때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여진(족)]을 회유하였다(1406, 태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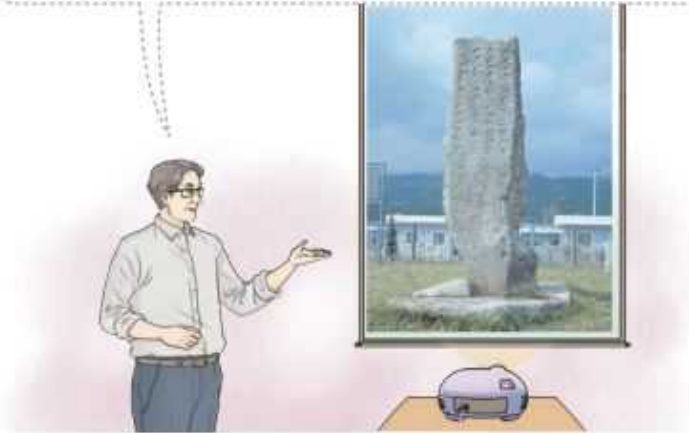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신라 문무왕 때 청방인문표를 보내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한 대상은 중국의 당(나라)이다. 일종의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를 작성한 인물은 강수(?~692)이다.
-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친동생인 김인문(629~694)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
- ② 고려 우왕 때 나세(1320~1397), 심덕부(1328~1401)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친 대상은 왜구이다(1380, 고려 우왕 6)(진포 대첩[해전]). 참고로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 ③ 고려 창왕 때 박위(?~1398)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한 대상 역시 왜구이다(1389, 고려 창왕 원년).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이종무(1360~1425)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쓰시마섬을 다시 토벌하였다(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여러 차례 토벌됨).
- ⑤ 조선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한 대상은 일본[왜]이다(1609, 조선 광해군 원년)(부산에 왜관 설치).

12 - 고려의 경제 상황

12.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 중 하나로 '상서호부(尙書戶部)의 승인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사·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했던 (가) 시대에 국가와 사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 ①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발행되었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 ③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였다.

정답> ①

'이것은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석표 중 하나로 '상서호부(尙書戶部)의 승인으로 세웠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국사·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했던 (가) 시대에 국가와 사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장생 석표', '국사·왕사 제도'라는 표현 등을 통해 주어진 (가)는 고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고려 숙종 대(재위 1095-1105)이다(1102, 고려 숙종 7).

오답 해설>

- ②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던 국가는 발해이다.
- ③ 만상(灣商)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국가는 조선이다(조선 후기).
- ④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던 국가는 신라이다(509, 신라 지증왕 10).
- 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한 국가는 조선이다(조선 후기).

13 - 고려의 문화유산

13. (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미(美)·색(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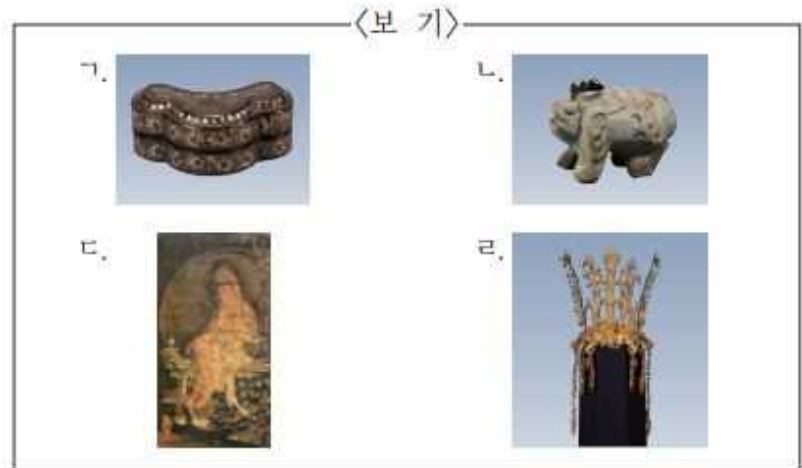
벨기에 소장 우리 문화유산 특별전

■기간: 2022. 00. 00. ~ 00. 00.
■장소: △△ 박물관 기획 전시실

초대의 글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에 들어와 보존 처리를 마친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가)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상감청자 6점을 비롯하여 청동 정병, 금동 침통 등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연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미(美)·색(色) 벨기에 소장 우리 문화유산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초대의 글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내에 들어와 보존 처리를 마친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가)의 공예품 8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가)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상감 청자 6점을 비롯하여 청동 정병, 금동 침통 등을 자세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연출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상감 청자'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

ㄱ. 고려의 나전 칠기에 속하는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다(12세기 작). '나전 국화 넝쿨무늬 자합' 또는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합'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여기서 '합(盒)'은 그릇의 일종으로, 운두(그릇 둘레의 높이)가 높지 않고 둥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는 것을 말한다.

ㄴ.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진묘수'이다. 무덤 속에 놓아두는 신상으로, 무덤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넣어두었다.

ㄷ. 수월관음도로 고려 시대인 14세기경 그려진 고려 불화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그렸다.

ㄹ. 신라의 금관이다. 원형대륜 전면에는 세 줄기의 출(出)자형 입식이, 후면에는 두 줄기의 사슴뿔 모양 장식이 세워져 있다. 곡옥*과 영락**으로 금관 전체가 장식되어 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은 모두 6점이다.

*곡옥(曲玉): 옥을 반달(초승달) 모양으로 다듬어 끈에 꿰어서 장식으로 쓰던 구슬

**영락(瓔珞): 보석의 일종으로, 얇은 금불이[쇠불이] 장식

이상의 <보기>에서 고려의 문화유산은, 'ㄱ과 ㄷ'이다.

14 - 강조의 정변

14.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 ②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해 축출되었다.
- ③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하였다.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⑤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하였다.

정답> ③

왼쪽 그림의 말풍선에 성종이 '누가 거란 진영에 가서 담판을 벌여 군대를 물러가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신, 서희가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문신 서희(942~998)가 [거란의 적장 소손녕(?~996)과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이어 오른쪽 그림의 말풍선에는 현종에게 한 장수가 '양규가 적을 무로대와 이수 등지에서 크게 무찌르고 포로를 되찾았다고 하옵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의 무신 양규(?~1011)는 거란의 제2차 침입 시 무로대와 이수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여 5,500여 명을 죽이고(각 2,000/2,500), 포로가 되었던 남녀 4천여 명을 되찾는 전공(각 3,000/1,000)을 세웠다(1010, 현종 원년).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1009)을 제거하고 목종(재위 997~1009, 제7대)까지 폐위시킨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묘청(?~1135)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 일명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하며 이때 묘청은 '대위국'을 천명하면서 '천개'를 연호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 군대를 '천견총의군'이라 하였다.
- ② 이자겸(?~1126)이 척준경(?~1144)에 의해 축출된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이자겸의 난).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몽골의 제2차 침입 시)(처인성 전투)(처인부곡의 항전).
- ⑤ (충북 충주 부근에 위치한)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토착 향리였던 지씨와 이씨의 지휘 하에) 충주(의 유학 산성)에서 몽골군(차리대가 이끈 5천여 명)에 항전한 것은 고려 고종 41년인 1254년의 일이다(다인철소 전투)(몽골의 제6차 침입 시, 1254~1259).

15 - 원 간섭기의 사회 모습

15.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제국 대장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원의] 강남 지역으로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 나중에는 환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잣과 인삼을 구하게 하였다. 비록 나오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

- 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 ②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 ③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 ④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철요가 간행되었다.
- ⑤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정답> ③

'제국 대장 공주가 일찍이 잣과 인삼을 [원의] 강남 지역으로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중에는 환관을 각지에 파견하여 잣과 인삼을 구하게 되었다. 비록 나오지 않는 땅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거두니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국 대장 공주(1259~1297)'는 고려 제25대 국왕인 충렬왕(재위 1274~1308)의 제1 왕비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는 원 간섭기*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몽골풍 유행).

오답 해설>

- 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의 일이다(사벌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
- ②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 국청사를 본찰로 하는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고려 숙종 2년인 1097년의 일이다.
- ④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황철요를 간행한 것은 조선 명종 9년인 1554년의 일이다.
- ⑤ (거란의 제2차 침입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의 일이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참고로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1232, 고종 19).

16 - 무신 정변

16.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조위총이 동·북 양계(兩界)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重房)에서 '북계의 여러 성은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을 수 있겠는가? 각자 군사와 말을 규합하여 빨리 서경으로 달려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 ①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②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 ④ 망이, 망소이 등이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 ⑤ 최충현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답> ②

'조위총이 동·북 양계(兩界)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아 말하기를, 소문에 따르면 개경의 중방(重房)에서 북계의 여러 성은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죽을 수 있겠는가? 각자 군사와 말을 규합하여 빨리 서경으로 달려와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서경 유수) 조위총(?~1176)이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일으킨 '조위총의 난'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174(고려 명종 4)~1176(명종 6)].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무신 정권을 세운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③ 신돈(?~1371)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전민변정도감: 권세자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⑤ 최충현(1149~1219)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한 것은 고려 희종 5년인 1209년의 일이다.

17 - 삼별초

17.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을 야별초(夜別抄)라고 하였다. 도적들이 여러 도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별초를 나누어 보내 이들을 잡게 하였다. 그 군사가 매우 많아 마침내 나누어 좌우로 삼았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몽골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자들을 한 부대로 삼아 신의군(神義軍)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가) 이/가 되었다.

- ①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 ②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 ③ 4군 6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④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 ⑤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였다.

정답> ④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들을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면서 포악한 짓들을 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을 야별초(夜別抄)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도적들이 여러 도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별초를 나누어 보내 이들을 잡게 하였다. 그 군사가 매우 많아 마침내 나누어 좌우로 삼았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몽골로부터 도망쳐 돌아온 자들을 한 부대로 삼아 신의군(神義軍)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가)이/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군사 조직은 삼별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삼별초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삼별초의 대몽항쟁, 1270.6~1273.6).

오답 해설>

① 광군사는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지방 농민으로 조직된 광군을 통할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다(947, 고려 정종 2). 광군은 처음에 지방 실권자인 호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광군사는 이들 호족을 통하여 광군을 통할하였으나, 광군이 주현군(지방군)으로 편입되면서 광군사가 직접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② 정미 7조약에 의해 해산된 군사 조직은 대한 제국의 군대이다. 즉 1907년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의 부수 비밀 각서에 의해 같은 해 8월 1일 대한 제국 군대가 해산되었고, 당시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1869~1907)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다. 이후 해산된 군대의 군인들 중 다수가 정미의병에 합류하였다.

③ 4군 6진이 개척된 것은 세종 대의 일이다. 최윤덕(1376~1445)에 의해 4군이 개척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 15년인 1433년이고, 김종서(1383~1453)에 의해 6군이 개척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인 1434년(세종 16)의 일이다. 4군과 6진의 개척이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⑤ 유사시에 향토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이었던 군사 조직은 조선 전기의 잡색군이 있다(1439, 조선 세종 21).

18 - 목은 이색

18.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역옹패설과 사략을 저술하였다.
- ②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③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 ④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 ⑤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

정답> ⑤

'초상화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이 그림은 고려 말 삼은(三隱) 중 한 사람인 목은(牧隱)의 초상화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곡(李穀)의 아들인 그는 고려와 원의 과거에 합격했으며, 문하시중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에 노력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 초상화는 당시의 관복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밑줄 그은 '그'는 목은 이색(1328~1396)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색은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1367, 고려 공민왕 16).

*학관(學官): 삼국 시대 이래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급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던 관원을 이르는 말이다. 교관(敎官), 교수관(敎授官)이라고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역옹패설과 사략을 저술한 인물은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이다. 역옹패설은 일종의 수필집이자 시 비평서이고, 사략은 역사서이다[각 1342(충혜왕 복위 3)/1357(공민왕 6)].
- ②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은 뇌천 김부식(1075~1151)이다(1145, 고려 인종 23).
- ③ 문헌공도[9재 학당]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쓴 인물은 고려의 문신 최충(984~1068)이다(1055, 고려 문종 9).
- ④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1190, 고려 명종 20).

19 - 조선 태종 시기의 사실

19.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 ②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 ③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 ④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간행되었다.

정답> ④

'문화유산이 전하는 이야기 - 광통교'라는 제목 아래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광통교도 옛 모습을 되찾았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광통교에는 능에 썼던 석물들이 있어요.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가)이/가 태조의 계비인 신덕 왕후의 능을 이장하고, 이전 능에 있던 병풍석과 난간석 등 석물 일부를 다리 제작에 사용하게 한 것이에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3대 국왕인 태종(재위 1400-141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된 것은 조선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지도이다.

오답 해설>

- ① 최무선(1325~1395)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화포 제작).
- ②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③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변사가 설치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 처음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 군사 회의 기구였으나, 양 난을 계기로 국방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 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내편)이 간행된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이순지, 김담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20 - 승정원

20. 밑줄 그은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책은 1870년에 편찬된 은대조례입니다. 서문에서 흥선 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니 앞으로 승지들의 사무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①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 ②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렸다.
- ③ 천문 연구, 기상 관측 등의 일을 맡았다.
- ④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하였다.

정답> ①

'이 책은 1870년에 편찬된 은대조례입니다. 서문에서 흥선 대원군은 은대라고 불린 이 기구의 업무 처리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니 앞으로 승지들의 사무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은대(銀臺)'라는 용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기구'는 승정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은 은대 외에도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언사(代言司) 등으로 불렸다(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로 칭함).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관장한 기구로 왕의 비서 기관이다.

오답 해설>

- ② 사간원, 사헌부와 함께 3사로 불린 조선의 기구는 홍문관이다. 홍문관은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성종 9년인 1478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 ③ 천문 연구, 기상 관측 등의 일을 맡았던 조선의 기구는 관상감이다(1466, 세조 12)(서운관에서 개칭).
- ④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선의 기구는 춘추관이다. 고려 개국 초에는 사관이라 하다가 충렬왕 34년인 1308년에 이를 문한서에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으로 고쳤고, 충숙왕 12년인 1325년에 예문관에서 갈라져 비로소 춘추관으로 독립하였다. 참고로 실록청은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기구이다.
- ⑤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한 조선의 기구는 의금부이다. 조옥(詔獄), 금오(金吾), 왕부(王府)라고도 불렸다.

*처결(處決): 결정하여 조치함.

21 - 보한재[희현당] 신숙주

21.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기해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 ②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하였다.
- ③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예안 향약을 시행하였다.
- ④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 ⑤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정답> ⑤

생몰이 '1417년~1475년'이고, 호가 '희현당(希賢堂), 보한재(保閑齋)'로 나와 있다. 이어 생애로 '집현전 학사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에 참여함, 계유정난으로 정난공신 2등에 책훈됨, 세조 때 사대교린의 외교 정책을 주도함, 예종 즉위 후 한명회 등과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논의함'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신숙주(1417~1475)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의 정치, 사회, 지리 등을 정리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1471, 성종 2).

오답 해설>

- ① 조선 현종 즉위년인 1659년에 발생한 기해예송(1차 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한 것은 서인이다. 참고로 2차 예송인 갑인예송이 일어난 것은 현종 15년인 1674년의 일이다.**
*기년설(淸年說): 유교식 상장(喪葬) 기간 중 하나로,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즉 '1년설'로 기년지설(淸年之說)이라고도 한다.
**예송은 1659년(현종 즉위) 효종, 1674년(현종 15) 효종비의 국상 때 생존해 있던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과 관련해서 제기된 논쟁으로, 기해예송에서는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이 승리(남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참최설(3년설) 주장)하였고, 갑인예송에서는 역시 기년설을 주장한 남인이 승리(서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공설, 즉 9개월 동안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하였다.
- ②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건의한 인물은 정암 조광조(1482~1519)이다(1519, 중종 14)(기묘사화).
- ③ 향촌의 풍속 교화를 위해 (경북 안동 예안에서) 예안 향약을 시행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이다(1556, 조선 명종 11).
- ④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한 인물은 정상기(1678~1752)이다(1740년대). 참고로 조선 세조 9년(1463)에도 정척과 양성지 등에 의해 '동국지도'가 제작된 일이 있는 것처럼 흔히 '동국지도'라 함은 숙종 때까지는 전국을 그린 지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었고, 영조 대 이후부터는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2 - 조선 세종이 추진한 정책

22.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관현맹(管絃盲)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



조선 시대 관현맹의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 관현맹은 궁중 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가)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 이/가 작곡한 여민락(與民樂)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

- ①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하였다.
-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 ③ 봉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웠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을 간행하였다.
- ⑤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였다.

정답> ⑤

'관현맹(管絃盲) 공연, 경복궁에서 재현'이라는 제목 아래 '조선 시대 관현맹의 공연을 재현하는 행사가 경복궁 수정전에서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현맹은 궁중 잔치에서 연주한 시각장애인 악사인데, 박연의 상소를 계기로 (가) 때 관직과 곡식을 받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이/가 작곡한 여민락(與民樂)을 시작으로 여러 곡이 연주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문신이자 음악가인 '박연(1378~1458)'이라는 인물과 '여민락*'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의 제4대 국왕인 세종(재위 1418~1450)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민락(與民樂):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여민락은 조선 세종 27년인 1445년에 세종이 태조 창업의 공덕을 경송(敬頌)하여 친히 지은 춤인 '봉래의(鳳來儀)'라는 대곡 가운데 3번째 부분의 곡이다. 정재(呈才, 대궐 안의 잔치 때 하던 춤과 노래)를 위한 무용음악의 하나이기도 한 봉래의는 전인자(前引子), 진구호(進口號), 여민락(與民樂, 치화평(致和平), 취풍형(醉豊亨), 후인자(後引子), 퇴구호(退口號) 등 모두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인자는 전주, 후인자는 후주이고, 진구호와 퇴구호는 춤이 시작되고 끝날 때 외치는 구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무원(舞員)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여민락을 비롯한 나머지 두 곡(치화평과 취풍형)은 성악곡이며, 노랫말로 용비어천가를 사용하였다.

유교 윤리의 보급을 위해 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것은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창덕궁에 신문고를 처음 설치한 것은 태종 2년인 1402년의 일이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고발 시설)이다.
- ②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창설한 것은 선조 26년인 1593년 8월의 일이다.
- ③ 봉당 정치의 폐단을 경계하고자 탕평비를 세운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을 간행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23 - 공인의 등장 배경[대동법]

23. 다음 상인이 등장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앞면)

- 직업 소개
선혜청 등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
- 요구 능력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기일에 맞춰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정답 ○ ○

(뒷면)

- ① 관수 관급제가 시행되었다.
- ②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 ③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 상회가 설립되었다.
- ④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정답> ④

왼쪽 앞면에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뒷면에 '직업 소개, 선혜청 등에서 공가(貢價)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궁궐과 관청에 납품하는 상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요구 능력,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기일에 맞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내용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상인'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 시행 이후 등장한 공인(貢人)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인은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됨으로써 비로써 등장하였다(17세기).

오답 해설>

- ① 관수 관급제가 시행된 것은 조선 성종 원년인 1470년의 일이다.
- ②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최초의 철전).
- ③ 근대적 상회사인 대동 상회가 설립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의 일이다. 평안도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인천에서 설립한 것으로, 대동 상회사, 평양 상회라고도 부른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된 것은 조선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신해통공).

24 - 한양 도성

24. 밑줄 그은 '이 성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총 둘레는 약 18km로 4대문과 4소문 및 암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①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 ② 도성조축도감이 축조를 관장하였다.
- ③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가 항전한 곳이다.
- ④ 조선 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 ⑤ 일제 강점기 도시 정비 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정답> ③

'이 성곽은 한성부 도심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총 둘레는 약 18km로 4대문과 4소문 및 암문, 수문, 여장, 옹성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주어진 지도에는 '인왕산, 북악산, 낙산, 목멱산'과 함께 '창의문, 숙정문, 혜화문, 흥인지문, 광희문, 숭례문, 소의문, 돈의문'이 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성곽'은 조선의 도읍인 한성의 주위를 둘러싼 성곽인 한양 성곽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양 성곽은 한양을 둘러싼 문(門)과 함께 한양 도성(漢陽都城)을 이룬다.

후금의 침입에 맞서 정봉수(1572~1645)가 항전한 곳은 (평안북도의 염주군과 피현군의 경계에 위치한) 용골산성이다(1627.2. 인조 5)(정묘호란).

오답 해설>

- ① 개국 초기 정도전 등이 설계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정도전(1342~1398)은 백악(白岳)을 비롯하여 인왕(仁旺), 목멱(木覓), 낙산(駱山)에 올라 실측하여 사산(四山)을 연결하는 5만 9,500척의 성터를 결정하였다.
- ② 축조를 관장한 도성조축도감이 설치된 것은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의 일이다. 성벽을 처음 축조할 때는 산지와 구릉에는 석성으로 쌓았고, 평지에는 토성으로 쌓았다. 세종 3년인 1421년에 도성수축도감을 설치하고 토성 부분을 석성으로 개축하는 등 대대적으로 고쳐쌓기도 하였다.
- ④ 조선 시대 축성 기술의 변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옳은 설명이다. 한양도성은 축조된 이래 수차례 개보수되었다.
- ⑤ 일제 강점기 도시 정비 계획을 구실로 크게 훼손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일제 총독부는 1915년 근대 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성시구역개수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성도성의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삼청동과 장충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 있고, 문도 남대문·동대문·동북문·홍예문만 남았었다. 8·15 광복 후인 1963년에 인왕상 방면과 북악산의 석축을 보수하였으며, 1972년과 1976년에 다시 부분 보수와 개축을 하였다.

25 - 정유재란

25. 다음 전투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권율이 정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柵)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 적은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맞히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 적이 결국 패해 후퇴하였다.

- 『선조수정실록』 -

- ① 최영이 홍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②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 ③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 ④ 이종무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정벌하였다.
- ⑤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였다.

정답> ③

'권율이 정병 4천 명을 뽑아 행주산 위에 진을 치고는 책(柵)을 설치하여 방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적을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처지가 되어 탄환도 맞히지 못하는데 반해 호남의 씩씩한 군사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여 쏘는 대로 적중시켰다. …… 적이 결국 패해 후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권율'이라는 인물과 '행주산'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임진왜란 때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행주 대첩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5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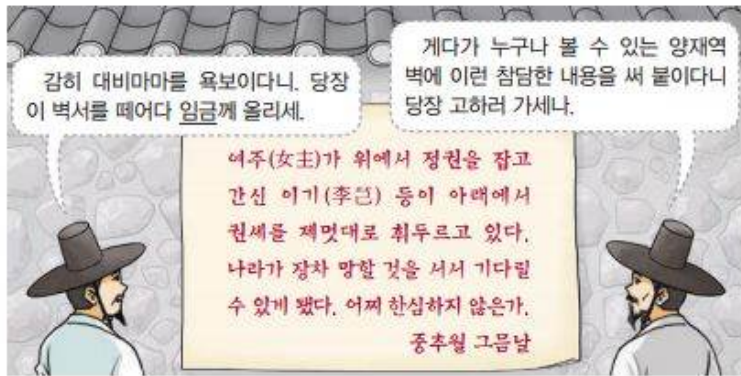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은 조선 선조 30년인 1597년 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최영(1316~1388)이 (충청도) 홍산에서 (왜구에게) 대승을 거둔 것은 고려 우왕 2년인 1376년 7월의 일이다(홍산 대첩).
- ② 이순신(1545~1598)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것은 선조 25년인 1592년 7월의 일이다.
- ④ 이종무(1360~1425)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를 정벌한 것은 세종 원년인 1419년 6월의 일이다.
- ⑤ 신립(1546~1592)이 탄금대(충북 충주 위치)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인 1592년 4월의 일이다.

26 - 조선 명종 대의 사실

26.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 ②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 ③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④ 김종직 등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 임금께 올리세'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 이런 참담한 내용을 써 붙이다니 당장 고하러 가세나'라는 말이 나와 있다. 덧붙여 벽서로 '여주(女主)*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李己)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그믐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른바 '양재역 벽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조선 명종 2년인 1547년의 일이다.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윤) 세력이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 붙여진 벽서를 빌미로 을사사화(1545) 이후 잔존한 반대파 인물들(대운 세력과 사람계)을 재차 숙청하였다. '정미사화'라고도 하며 후일 소윤 일파 몰락 후 벽서 사건 자체가 무고임이 공인되었다.

*여기서 대비마마와 여주는 모두 11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모친인 문정 왕후(1501-1565)를 가리킨다. 불교 중흥을 도모하였으며 조선의 축천무후라 불릴 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난 것은 명종 원년인 1545년의 일이다[명종(재위 1545-1567, 제13대)].

오답 해설>

- ① 사람이 동인(김효원 지지)과 서인(심익겸 지지)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선조 8년인 1575년의 일이다(이른바 '동·서 분당').
- ③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것은 1623년의 일이다(인조반정).
- ④ 점필재 김종직(1431~1492) 등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재위 1469-1494, 제9대)이다.
- ⑤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한훤당[사옹] 김굉필(1454~1504) 등의 사람이 처형된 것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의 일이다(갑자사화).

27 - 수원 화성

27.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다.
- ㄴ. 포루, 공심돈 등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
- ㄷ.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에 충당하였다.
- ㄹ.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정조가 정치적 이상을 담아 축조한 (가) 안의 모습이 참 예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정조가 행차할 때 머물렀던 행궁과 장용영 군사를 지휘했던 서장대도 보여'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수원 화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ㄱ.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환궁한 궁은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이다 (1897.2).

*경운궁(덕수궁): 경운궁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1454~1488)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에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던 것이 1907년 7월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한 뒤 이곳에 살면서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다시 명칭이 '덕수궁'으로 바뀌었다(사적 제124호). 주요 건물로 중화전, 석조전, 증명전, 정관헌, 함녕전, 대한문 등이 있다.

ㄴ. 포루*, 공심돈** 등 방어 시설을 갖추었다. 옳은 설명이다.

*포루: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성벽을 돌출시키거나 유리한 지세에 대포를 쏠 수 있게 장치한 누각으로, '포좌'라고도 한다.

**공심돈: 성곽의 치(雉) 위에 성이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높은 망루가 돈(墩)돈대이다. 공심돈(空心墩)은 글자의 뜻 그대로 '속이 빈 돈대'로 내부는 층을 나누고 위 아래에 구멍을 뚫어서 성밖 동정을 살피고 화살이나 화포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수원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돈 형태로 원래는 3개의 공심돈 즉, 남공심돈, 서북공심돈, 동북공심돈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ㄷ. 당백전을 발행하여 건설 비용에 충당한 문화유산은 경복궁이다. 흥선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사용되었다[1865(고종 2)~1868(고종 5)].

ㄹ.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 등을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1794.2~1796.9).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정조 13년인 1789년의 일이다.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는 물론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활용되었다.

이상의 <보기>에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28 - 답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

28. (가), (나)를 쓴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실옹이 웃으며 말하기를, “……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이다. 9만 리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라고 하였다.

(나) 허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온갖 물건이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곤 하지 않나. …… 어떤 물건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한다면, 그 물건은 한 곳에 갇혀서 유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라고 하였다.

- ①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③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 ④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에 다녀와 연행록을 남겼다.
- ⑤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하였다.

정답> ④

(가)에 '실옹이 웃으며 말하기를, …… 대저 땅덩이는 하루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이다. 9만 리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실옹'이라는 인물과 다른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주어진 자료는 『의산문답』의 일부분으로, 답헌 홍대용(1731~178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홍대용은 해당 책에서 지전설 및 무한우주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천문 관측 기구인 혼천의를 제작하는 등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에는 '허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온갖 물건이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곤 하지 않나. …… 어떤 물건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한다면, 그 물건은 한 곳에 갇혀서 유통되지 못하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허생전」의 일부분으로 연암 박지원(1737~180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모두 연행사의 일원으로 청에 다녀와 연행록을 남겼다(홍대용, 『을병연행록』*/박지원, 『열하일기』**)

*『을병연행록』: 영조 41년인 1765년 겨울부터 이듬해인 1776년 봄까지, 작은아버지 홍익이 청에 갈 때 연행사의 일행, 군관으로 수행하면서 한글로 쓴 사행일기(기행문)이다.

**『열하일기』: 정조 4년인 1780년에 청 건륭제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을 수행하여 청 황제의 피서지인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일들을 소상하게 담은 사행일기이다(일종의 여행기인 '연행일기').

오답 해설>

- ① 갑술환국이 일어난 것은 조선 숙종 20년인 1694년의 일이다. 이로써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 ②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 ③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된 인물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이다(1779, 정조 3).

29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9.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 ②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 ③ 장시에서 물품을 파는 보부상
- ④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 ⑤ 벽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의 상인

정답> ⑤

'이 그림은 책과 함께 도자기, 문방구 등이 놓인 책가*를 그린 책가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책가도가 유행한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민화가 왕실과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는 조선 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책가(冊架): 책을 놓는 시렁을 가리킨다. '책거리'라고도 한다. 시렁은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이다.

벽란도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다. 따라서 벽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의 상인의 모습은 고려 시대, 그것도 고려 전기에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판소리가 유행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장시에서) 탈춤 공연이 벌어진 것도 조선 후기이다.
- ③ 장시에서 물품을 파는 보부상이 등장한 것도 조선 후기이다.
- ④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등장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이다. 한글 소설 역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행하였다.

<28번 오답 해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⑤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화폐 사용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은 성호 이익(1681~1763)이다. 이익은 소농민을 몰락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을 화폐 유통이라고 보아 폐전론을 주장하였다(화폐 유통에 비판적). 반대로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0 - 신미양요

30.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홍경래의 난 | 고종 즉위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오페르트 도굴 사건 | 척화비 건립 |
| 강화도 조약 | | | | |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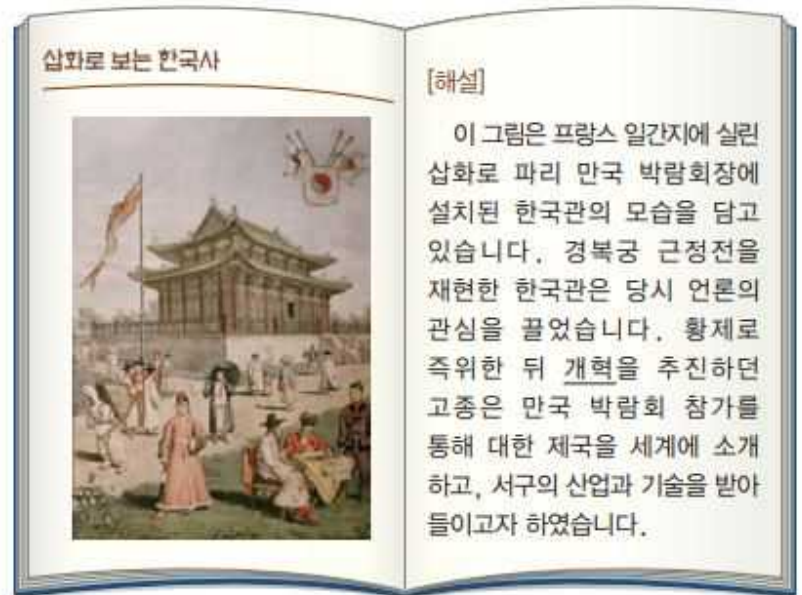
정답> ④
 '이곳은 강화도 광성보 끝자락 용두돈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광성보는 이 사건 당시 침입한 미군에 맞서 어재연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군이 결사 항전한 곳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은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발한 신미양요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미양요 직후 조선 정부는 흥선 대원군의 주도로 서울[한성]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서울 종로 네거리, 경기도 강화, 경상도 동래군·함양군·경주·부산진 등).

주어진 연표에서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과 척화비 건립 사이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독일계 유대 상인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을 사건이다(고종 5년인 1868년 5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라고도 함).

31 -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31. 밑줄 그은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③ 관립 의학교와 광제원을 설립하였다.
 ④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
 ⑤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정답> ③
 '삽화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로 '이 그림은 프랑스 일간지에 실린 삽화로 파리 만국 박람회*에 설치된 한국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경복궁 근정전을 재현한 한국관은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뒤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은 만국 박람회 참가를 통해 대한 제국을 세계에 소개하고, 서구의 산업과 기술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황제로 즉위한 뒤 개혁을 추진하던 고종'이라는 표현에서 밑줄 그은 '개혁'은 광무개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897~1904). 고종이 환구단[원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한 것은 재위 34년인 1897년 10월 12일의 일이다.

*파리 만국 박람회: 1900년 4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파리에서 5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대한 제국이 참가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제국을 소개하고 독립국의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관립 의학교가 설립된 것은 고종 36년(광무 3)인 1899년 3월의 일이다. 학부 소속의 관립 의사 양성 학교로, '경성 의학교'라고도 한다. 또한 광제원이 설립된 것은 이듬해인 1900년 7월의 일이다. 내부 소속의 국립 병원으로 6월에 발족된 보시원(普施院)이 며칠 뒤 개칭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②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④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간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10월의 일이다. 한성순보는 근대적 신문의 효시로, 월 3회 발간되었다.
 ⑤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 공채를 발간한 것은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이다. 한일 관계 사료집은 임시 정부가 임시 사료 편찬소를 통해 1919년 7월에 편찬하였으며, 독립 공채는 같은 해 11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32 -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3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교정청 설치
- ② 전봉준 체포
- ③ 13도 창의군 결성
- ④ 안핵사 이용태 파견
- ⑤ 남접과 북접의 연합

정답> ⑤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이라는 제목 아래 '고부 농민 봉기 → 황토현 전투 → 전주 화약 체결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 (가) → 우금치 전투'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동학 농민군은 고종 31년인 1894년 5월 8일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철수하였다(제1차 봉기). 하지만 일본군이 같은 해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자 동학 농민군은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다시 봉기하였다(제2차 봉기). 참고로 동학 농민군의 남접과 북접이 (충남) 논산에서 연합한 것은 1894년 10월 9일의 일이다(제2차 봉기).

오답 해설>

- ①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위해) 교정청이 설치된 것은 1894년 6월 11일의 일이다. 같은 해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② 동학 농민군 남접의 지도자 전봉준(1855~1895)이 (전북 순창에서 부하의 밀고로) 체포된 것은 1894년 12월 2일의 일이다(이듬해인 1895년 4월 24일 서울에서 처형).
- ③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정미의병'들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다(창의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 이듬해 1월에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 ④ 고부 농민 봉기의 수습을 위해 안핵사 이용태(1854~1922)가 파견된 것은 1차 봉기(1894.3) 전인 1894년 3월의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일처리로 동학 농민군의 원성을 사 결국 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3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33. 밑줄 그은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되었다.
- ② 김홍집이 국내에 조선책략을 소개하였다.
- ③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병사가 파견되었다.
-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정답> ③

'영어,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한 표석 설치'라는 제목 아래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체결된 장소에 새로운 표석이 설치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기존 한글 안내판에 영어와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한 이번 표석 설치'는 개항기 대의 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장소를 외국인에게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의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의 밑줄 그은 '조약'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2.5, 조선 고종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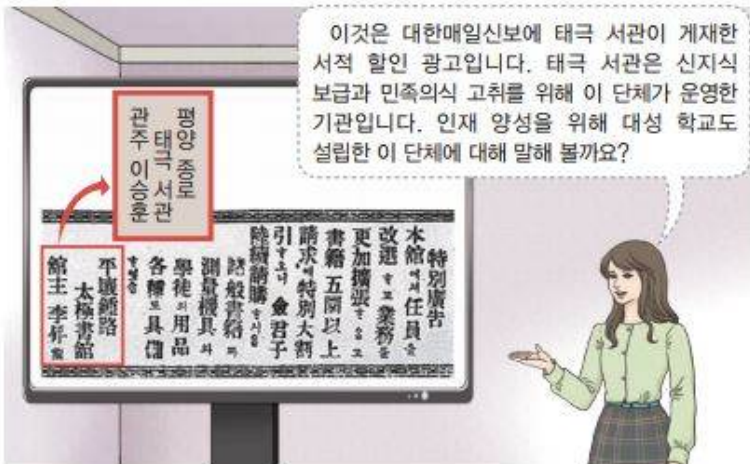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병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종사관 서광범(1859~1897) 등으로 구성된 보병사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것이며,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다.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부산, 원산, 인천 항구가 개항한 것은 조선 고종 13년인 1876년 2월 27일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에 따른 것이다(제4관의 내용). 이에 따라 부산이 1876년에, 원산이 1880년에, 인천이 1883년에 개항하였다.
- ②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1842~1896)이 『조선책략』*을 가져와 고종에게 바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9월의 일이다. 고종은 이를 필사하여 전국에 널리 읽히게 하였다.
-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현(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현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
- ④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일본의 포함 외교). 강화도 조약 체결의 빌미가 되었다.
- ⑤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34 - 신민회

3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어요.
- ②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어요.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어요.
- ④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하였어요.
- ⑤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였어요.

정답> ④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에 태극서관이 게재한 서적 할인 광고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태극서관은 신지식 보급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이 단체가 운영한 기관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성 학교도 설립한 이 단체에 대해 말해 볼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주어진 사진에는 '관주 이승훈, 태극서관, 평양 종로'라는 글자가 광고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태극서관' 등의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비밀 결사 단체인 신민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민회는 계몽 서적의 보급을 위해 (서울, 평양, 대구에서) 태극서관을 운영한 바 있다 (1908.5).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 결사로 조직한 단체이다 (1907.4~1911.9).

오답 해설>

- 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이다(1922.11). 창립 총회가 열린 것은 이듬해인 1923년 3월의 일이다(1923.3.29).
- ② 러시아의 (저탄소 설치를 명목으로 한)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 조차* 요구(1897.7)를 저지한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1898.2).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신한 청년단 [신한 청년당]이다(1918.8). 당시 우사 김규식(1881~1950)이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1919.5).

*조차(組借):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 ⑤ 국문 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한 것은 대한 제국의 학부이다(1907.7). 참고로 한글학자 한헌샘 주시경(1876~1914)이 국문 연구소의 연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문법을 정리하였다.

35 - 호머 헐버트의 활동

35.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23세 때 육영 공원의 교사로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소. 고종의 특사가 되어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헤이그를 방문하였고, 대한 제국 멸망사를 출간하기도 했소. 나는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염원하오.



- ①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
- ② 한글로 된 교재인 사민필지를 집필하였다.
- ③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하였다.
- ⑤ 논설 단연보국채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정답> ②

'나는 23세 때 육영 공원에 교사로 조선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소'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종의 특사가 되어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 헤이그를 방문하였고, 대한 제국 멸망사를 출간하기도 했소. 나는 한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염원하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인물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육영 공원에 교사로 초빙된 호머 헐버트(1863~1949)임을 알 수 있다.

호머 헐버트는 한글로 된 (세계지리) 교재(교과서)인 「사민필지(士民必知)」를 집필하였다(1891, 고종 28).

오답 해설>

- ①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한 인물은 재정 고문으로 온 메가타 다네타로(1853~1926)이다(1905.7~1909.12).
- ③ 여성 교육 기관인 이화 학당을 설립하여 근대적 여성 교육에 기여한 인물은 미국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여사(1832~1909)이다(1886.5).
- ④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한 인물은 장인환(1876~1930)이다(1908.3). 그 직전 전명운(1884~1947)도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쏘았으나 격발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스티븐스가 이에 맞서 전명운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장인환이 총을 쏘았다. 하지만 첫발은 전명운의 어깨를 맞혔고, 연달아 쏜 두 발이 스티븐스를 맞추었다(이틀 후 사망).
- ⑤ (황성신문에) 논설 단연보국채(斷煙報國債)를 써서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07.2.25).

36 - 독립 협회의 활동

36.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②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③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⑤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아들아,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차별을 극복하고 의사가 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10년 전 (가)이/가 주관한 관민 공동회 개최식에서 당당하게 충군애국의 뜻을 밝히신 아버지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6.7~1899.12).

독립 협회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1898년 10월 관민 공동회에서 채택된 헌의 6조).

오답 해설>

- ①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13).
- ③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동아일보이다(1931~1934).
- ④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 위원부를 (미국 워싱턴에) 설치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9).
- ⑤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한 단체는 찬양회(贊襄會)이다(1898.9). 찬양회는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 단체로, 사실 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조직되었다.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다.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37 - 광주 학생 항일 운동

3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조선 사회 운동 단체인 정우회는 며칠 전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선언서에서 민족주의적 세력과 과도기적 동맹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타협과 항쟁을 분리시켜 사회 운동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자는 것을 말하였다.

(나) 조선 민족 운동의 중추 기관이 되려는 사명을 띠고 창립되었던 신간회가 비로소 첫 번째 전체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신히 열리는 전체 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하게 된 것은 조선의 현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다.

- 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임병찬이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③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④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⑤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정답> ①

(가)에 '조선 사회 운동 단체인 정우회는 며칠 전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선언서에서 민족주의적 세력과 과도기적 동맹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타협과 항쟁을 분리시켜 사회 운동 본래의 사명을 잊지 말자는 것을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정우회', '선언서'라는 표현 등에서 주어진 자료는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926.11.15). 신간회 창간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1927.2.15).

(나)에는 '조선 민족 운동의 중추 기관이 되려는 사명을 띠고 창립되었던 신간회가 비로소 첫 번째 전체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간신히 열리는 전체 대회에서 해소 문제 토의를 최대 의제로 하게 된 것은 조선의 현 상황이 아니고서는 보기 어려운 기현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간회의 '첫 번째 전체 대회 개최'이자 '해소 문제 토의'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나)'는 신간회 해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간회는 좌우익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분란이 계속되다가 1931년 5월 경성 중앙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7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소 대회를 열고 '해소'를 결의, 창립된 지 만 4년 만에 막을 내렸다(1931.5.15-16).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1월의 일이다(~1930.3).

오답 해설>

- ② 임병찬(1851~1916)이 (대한)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것은 1912년 9월의 일이다(~1913.5).
- ③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1920년 6월의 일이다(1920.6.7). 홍범도(1868~1943)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봉오동까지 추격해온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 추격대대(越江追擊大隊)를 격파하였다.
- ④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서를 (일본 도쿄에서) 발표한 것은 1919년 2월의 일이다.
- ⑤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산하에 조선 의용대가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한커우[한구]에서) 창설된 것은 1938년 10월의 일이다.

38 - 대조선 국민 군단(박용만)

38. 밑줄 그은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박용만은 1905년 국외로 떠난 이후 네브라스카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하고, 국민개병설을 집필했습니다. 그 후 이곳으로 건너와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박용만은 1905년 국외로 떠난 이후 네브라스카주에서 대학을 다니며 독립군 양성 기관인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하고, 국민개병설을 집필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 후 이곳으로 건너와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대조선 국민 군단이 사용한 건물과 군복을 입은 박용만'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박용만(1881~1928)이 정한경(1891~1985) 등과 협력하여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한인 소년병 학교를 창설한 것은 1909년 6월의 일이다.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이 창설된 것은 미주인 하와이 지역이다(1914.6).

오답 해설>

- ① 중국의 서간도[남만주] 지역이다.
- ②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이다.
- ③ 중국의 상하이 지역이다.
- ⑤ 미주의 멕시코 지역이다(유카탄반도의 메리다 지역).

39 - 국외 독립 전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39. (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외 독립 전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몰: 1896년 ~ 1934년 • 대한 통의부 의군으로 활동 • 조선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 일제의 밀정에 의해 사망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몰: 1888년 ~ 1957년 • 신흥 무관 학교 교장 대장으로 독립군 양성 •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취임 •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 ① (가) -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② (가) -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③ (나) -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거두었다.
- ④ (나) -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를 조직하였다.
- ⑤ (가), (나) - 황포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정답> ③

'국외 독립 전쟁을 이끈 독립운동가'라는 제목 아래 (가)에 '생몰: 1896년~1934년, 대한 통의부 의군으로 활동, 조선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일제의 밀정에 의해 사망,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가 차례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양세봉(1896~193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어 (나)에는 '생몰: 1888년~1957년, 신흥 무관 학교 교장 대장으로 독립군 양성,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 전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에 취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나)'는 지청천(1888~195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 7월에 지청천 총사령(관)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전투이다(한·중 연합 작전).

*대전자령 : 중국 만주의 헤이룽장성(흑룡강성)에 위치

오답 해설>

① 조선 혁명 간부 학교가 설립된 것은 1932년 10월의 일이다.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이 중국 국민당과 교섭하여 중국 난징 교외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② (대구에서 비밀리에)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한 인물은 박상진(1884~1921)이다(1915.7~1918.1). 대한 광복회는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④ 중광단을 중심으로 북로 군정서[대한 군정서]*가 조직된 것은 1919년 12월의 일이다(북만주 지역).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 군정부[북로 군정서] 직전의 명칭은 대한 군정회였고, 또 그 전의 명칭은 중광단이었다. 중광단은 대중교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로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⑤ 황포 군관 학교는 중국 국민당 지도자 쑨원(1866~1925)이 1924년 1월 중국 광저우에 설립한 군사 교육 기관이다. 의열단원*을 비롯한 한인들이 1926년 이후 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입교하여 군사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1898~1958)은 황포 군관 학교에 4기생으로 입교하여 훈련받았다(1926.3-10).

40 - 일제 강점기 말의 정책

40. 밑줄 그은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부평 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의 무기 공장인 조병창 등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



- ① 치안 유지법을 공포하였다.
- ②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다.
- ③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④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 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정답> ④

'부평 공원* 내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의 무기 공장인 조병창 등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일제는 한국인을 탄광, 군수 공장 등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시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일 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라는 표현에서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부평 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

일제가 식량 배급 및 미곡 공출제를 시행한 것은 강점기 말이었다. 특히 미곡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1년부터이다. 일제(조선 총독부)는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1941년 미곡년도부터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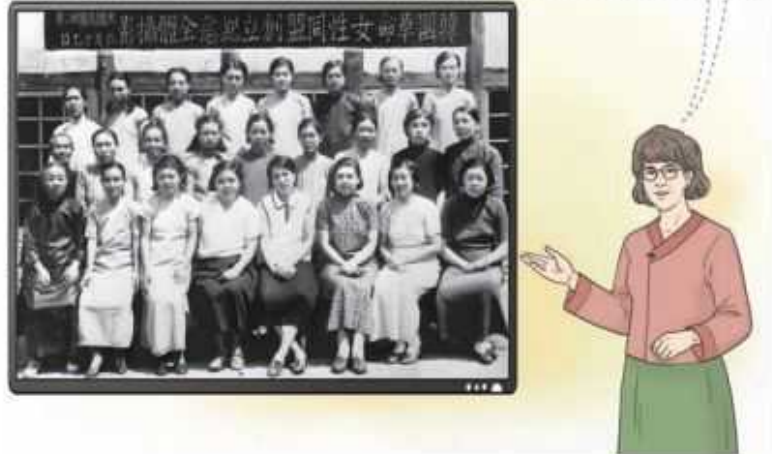
- ① 일제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② 토지 조사령을 제정한 것은 1912년 8월의 일이다[제령(制令) 제2호].
- ③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10년대이다(무단 통치).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劄)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 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것은 제1차 조선 교육령 때의 일이다(1911.8)*

*제1차 조선 교육령 제8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41 - 대한민국 임시 정부

41.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가) 요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국 혁명 여성 동맹의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②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 ⑤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하였다.

정답> ⑤

'이것은 (가) 요인들의 가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한국 혁명 여성 동맹의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등에 주력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1년 12월이고(1941.12.10), 한국 혁명 여성 동맹이 창립된 것은 1941년 6월의 일이다(1941.6.17).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을 선포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1941.11.28). 조소앙(1887~1958)이 기초한 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국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임시 정부 국무 위원회 명의로 공포).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개 장과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향후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좌우 합작 위원회이다(1946.7.25-1947.10.6).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 ② 서간도(남만주)의 삼원보로 망명한 항일 구국 인사들에 의해 한인 자치 기관인 경학사가 조직된 것은 1911년 4월의 일이다(1912년 부민단으로 계승).
- ③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것은 의열단이다(1919.11). 조선 혁명 선언이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것은 조선어 학회이다(1933.10). 조선어 학회는 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조선어 학회는 또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이듬해인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42 - 제주(도) 4·3 사건

42.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유신 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④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기념관에 있는 이 비석은 왜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은 걸까?'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가)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거래. 제주도에서 일어난 (가)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뒤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이야'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1948년 4월에 일어난 제주(도) 4·3 사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월의 일이다(2000.1.12). 특별법의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16일 국무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특별 재심 조항이 신설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 회복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해설>

① 유신 헌법[제7차 개헌]이 공포·시행된 것은 1972년 12월의 일이다(1972.12.27)(박정희, 8대 대통령 취임).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 체제를 선포*하였고, 같은 해 11월 21일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였다.

*유신 체제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 투표로 확정하도록 지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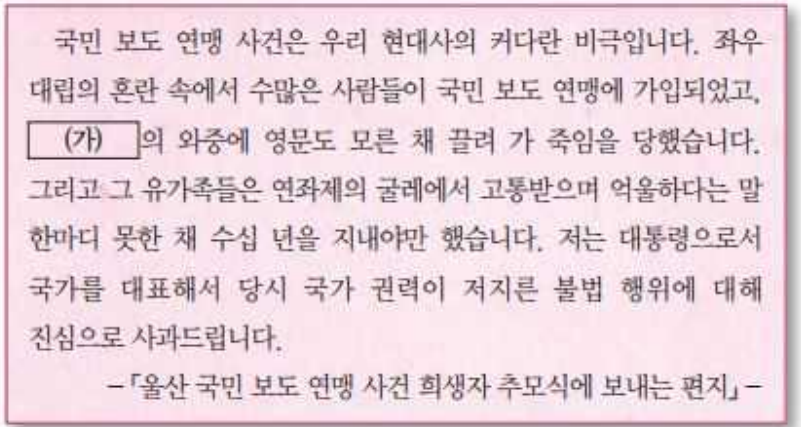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1972년 12월 제7차 개헌[유신 헌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④ 4·13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것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에서의 일이다.

⑤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미군정기인 1946년 3월의 일이다(1946.3.3~1948.3.22).

43 - 6·25 전쟁

43.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6·3 시위가 발생하였다.
- ②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 ④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⑤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정답> ⑤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되었고, (가)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 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서 고통받으며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출처로는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내는 편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1950년 6월에 발발한 6·25 전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주어진 자료는 고 노무현 대통령(1946~2009)이 2008년 1월 울산 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울산 국민 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보낸 메시지[편지]이다(2008.1.24).

*국민 보도 연맹 사건: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민 보도 연맹에 가입한 연맹원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다. 1950년 6월 말에서 9월경까지 전국에 걸쳐 수만 명의 연맹원들이 학살되었다. 국민 보도 연맹은 좌익 전향자를 계몽·지도[교화]하여 전향시키기 위해 1949년 4월 조직된 관련 단체로 가입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수(강제) 가입하였다.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9월 15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된 것은 1964년 6월의 일이다(6·3 시위).

② 애치슨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0). 애치슨 선언이란, 1950년 1월 10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893~1971)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언명한 것을 말한다.

③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된 것은 1966년 3월의 일이다(1966.3.7).

④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1979년 10월의 일이다(1979.10.16-20).

44 - 제2차 개헌안 발표 이후의 사실

44. 밑줄 그은 '개헌안'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③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이번에 여야 합의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개헌안에 따라 허정 과도 정부가 총선을 실시하면 정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개헌안'은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 추진된 제3차 개헌안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1960.6.15).

*허정 과도 정부: 제1공화국 붕괴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속한 과도 정부이다(제3차 개헌 이름). 같은 해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3차 개헌안에 의해 제2공화국[장면 정부]에서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1960.8.12-1961.5.16).

오답 해설>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의 일이다(1948.9.22).
- ②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최종) 결렬된 것은 1947년 9월의 일이다(1947.9.17). 미국은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차 난관에 봉착하자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실시안이 가결되었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된 것은 1958년 1월의 일이다(1958.1.13).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6월의 일이다(1949.6.21). 참고로 농지 개혁법이 공포된 것은 1950년 3월 10일의 일이다.

45 - 박정희 정부 시기의 모습

45.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최저 임금법 제정으로 최저 임금을 심의하는 위원
- ②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 ③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 ④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 ⑤ 정부의 도시 정책에 반발해 시위를 하는 광주 대단지 이주민

정답> ⑤

'실감 콘텐츠로 만나는 000 정부'라는 제목과 함께 '포항 제철소 착공식', '제1차 석유 파동으로 멈춰 선 버스', '100억 불 수출 달성'이 사진과 함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포항 제철소 착공식'이 있었던 것은 1970년 4월이고(준공은 1973년 7월, '7·3 준공'), '제1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것은 1974년 1월(제2차 석유 파동은 1978년 10월), '100억 불 수출 달성'을 한 것은 1977년 12월의 일로 모두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실들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도시 정책에 반발해 광주 대단지 이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은 1971년 8월의 일이다(1971.8.10). 당시 경기도 광주 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이주민 수만여 명(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 정책과 졸속 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른바 '광주 대단지 사건').

오답 해설>

- ① 최저 임금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6년 12월의 일이다(1986.12.31)(시행은 1988.1).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다가 2000년 11월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 ②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③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FTA)이 비준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2월의 일이다(2004.2.16). 협정이 발효된 것은 같은 해 4월이다(2004.4.1)
- ④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른바 '민주노총')이 창립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1월의 일이다(1995.11.11).

46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6.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곡은 (가)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노래입니다. (가)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 ①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되었다.
- ②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 ③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 ④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④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하는 온라인 협동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이 곡은 (가) 기념식에서 제창하는 노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윤상원과 광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덧붙여 사진 자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80.5.18-27).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다.

오답 해설>

- ① 시위 도중 대학생 이한열이 희생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연세대 재학생 이한열(1966~1987)이 시위 중에 최루탄에 피격당한 것은 1987년 6월 9일이고, 입원 중 사망한 것은 같은 해 7월 5일이다.
- ②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은 민주화 운동은 1960년의 4·19 혁명이다. 경무대는 청와대의 당시 명칭이다.
- ③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서울대 재학생 박종철(1965~1987)은 1987년 1월 14일 서울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물고문을 받다 사망하였다. 6월 민주 항쟁을 촉발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주장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야당) 인사들이 발표한 선언으로,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47 - 개성 공업 지구 건설 착공

4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6·15 남북 공동 선언」 -

(나)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0·4 남북 정상 선언」 -

-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 ③ 개성 공업 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 ④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정답> ③

(가)에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출처로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 선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에는 '4.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출처로 「10·4 남북 정상 선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에 있었던 10·4 남북 공동 선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8월의 일이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져 같은 해인 2000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고(2000.8.29), 2002년 8월에 개성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월에 개성공단 착공식이 거행되었다(2003.6.30).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가 개소하였다. 2004년 12월에 이르러 시범단지 분양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이루어졌다.

오답 해설>

- ① 남북 조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 역시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 ④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1.-22). 당시 50명 규모였으며,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48 - 조선 왕조 의궤

48.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 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1,100여 점의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 (가) 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 기>—

- ㄱ.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 ㄴ.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되었다.
- ㄷ.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이 따로 제작되었다.
- ㄹ.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프랑스군에게 약탈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저는 지금 파리에서 열린 한지 공예 특별전에 나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작품은 영조와 정순 왕후의 혼례식 행렬을 1,100여 점의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일체의 관련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인 (가)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조선 왕조 의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 의궤: 조선 왕실의 행사 준비와 시행,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조선 전기의 의궤는 임진왜란 때 모두 일실되었고 1601년부터 1942년 사이에 제작된 것만이 현존한다 (약 4,000책의 의궤).

- ㄱ.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된 것은 조선 왕조 실록이다.
- ㄴ. 조선 왕조 실록은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구성된 대표적인 역사서이기도 하다.
- ㄷ. 의궤는 왕의 열람을 위한 어람용과 보관을 위한 분상용이 따로 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ㄹ. 병인양요 당시 일부가 (강화도에 보관 중) 프랑스군에게 약탈되었다(1866. 조선 고종 3). 옳은 설명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옳은 설명은, 'ㄷ과 ㄹ'이다.

49 - 각 시대별 관리 임용 제도

[49~5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였다.

(나)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대궐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라) 제4조 의정부 및 각 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 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한다.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무에 통달한 자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한다.

49. (가)~(라)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가) -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 ㄴ. (나) -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ㄷ. (다) - 중종 때 사림과 연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해 본다.
- ㄹ. (라) - 임술 농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파악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가)에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나)에는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과거제를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다)에는 조광조가 아뢰기를,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대궐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정암)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량과가 시행된 것은 조선 중종 14년인 1519년의 일이다.

(라)에는 '제4조 의정부 및 각 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 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한다.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무에 통달한 자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의정부 관제를 일본 식의 내각 관제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 4월의 일이다(1894.12-1895.8). 이로써 전체 관리를 당상관, 당하관, 참서관으로 구분한 것을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으로 구분하였다. 주어진 자료는 1898년 12월에 마련된 '주판임관시험급임용규칙'이다.

- ㄱ. 최승로(927~989)의 시무 28조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려 성종 원년인 982년의 일이다.
- ㄴ. 과거제는 (노비안검법과 함께) (고려)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958, 광종 9).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 ㄷ. 현량과는 (조선) 중종 때 사림파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적절한 탐구 활동이다. 정암 조광조(1482~1519)는 당시 홍문관 부제학을 거쳐 사헌부의 장관인 대사헌을 역임하는 등 사림파 언관의 중심인물이었다.
- ㄹ.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은 조선 철종 13년인 1862년의 일이다. 당시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1807~1876)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1862.5).

이상의 <보기>에서 적절한 탐구 활동은, 'ㄴ과 ㄷ'이다.

50 - 과거제와 현량과

[49 ~ 5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관리를 선발하였다.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곡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하였다.
- (나) 쌓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시·부·송 및 시무책으로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겸하여 명경업·의업·복업 등도 뽑았다.
- (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중앙에서는 홍문관·육경·대간,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대결에 모아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 (라) 제4조 의정부 및 각 부 판임관을 임명할 시에는 각기 관하 학도 및 외국 유학생 졸업자 중에서 시험을 거쳐 해당 주무 장관이 전권으로 임명한다. 단, 졸업자가 없을 시에는 문필과 산술이 있고 시무에 통달한 자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한다.

50. 밑줄 그은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 -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 -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었다.
- ③ ㉡ -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되었다.
- ④ ㉡ -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다.
- ⑤ ㉠, ㉡ - 홍범 14조 반포를 계기로 시행되었다.

정답> ②

(나)에서 밑줄 그은 '㉠'은 과거제를 가리킨다. 이어 (다)에서 밑줄 그은 '㉡'은 현량과를 가리킨다.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실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과거 시험관인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역분전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처음 실시된 토지 분급 제도이다.

③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된 것은 (현량과가 아니라) 고려 시대의 과거제이다.

④ 성균관에서 보는 관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나뉘었던 것은 조선 시대의 과거제이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 순으로 치러졌는데 그중 초시에 해당한다.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관시에서 50명, 한성시에는 40명, 향시에서는 도별 인구 비례로 총 150명을 선발하였다.

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1월의 일이다(제2차 갑오개혁, 1894.12~1895.8).

- 이 상 -